

김관영 “메타버스 산업 새 미래먹거리로 육성”

(민주 도지사 후보)

LX 찾아 사업 추진상황 등 검토 “디지털 국토정보, 미래성장동력 가능성”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는 12일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를 방문, 메타버스(metaverse)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LX 관계자와 함께 사업 추진 상황 등을 검토했으며, 관련 사업과 전북도 발전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LX는 전주시 디지털트윈 표준 모델을 전국에 확산하고, 도로·철도·지하 분야의 품질관리로 안전한 국토관리에 힘쓰고 있다”면서 “디지털 국토정보를 활용해 혁신성장 선도하고, 전북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LX는 2020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 및 정확한 지하정보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로 지정됐다”면서 “지하정보 정확도 개선 및 갱신정보 구축,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 등을 수행함으로써 지하정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가 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사진 오른쪽)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보사업에 대한 역할 확대 및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국토정보는 메타버스, ICT산업과 융합해 미래성장동력이 될 수 있고, 전주와 익산에 걸쳐있는 메타버스 산업 육성은 전북도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천마 제품을 살펴보고 있는 송하진 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12일 무주군 안성면에 위치한 천마클러스터 현장을 살펴보고 그동안 성과와 발전 전략을 직접 확인했다. 송 지사의 이날 무주 방문은 도내 동부권 6개 시·군의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 3단계’가 추진되고 있어 사업을 점검하기 위한 차원이다.

“강력한 정부 지원 필요”

조배숙 국힘 도지사 후보 전북선관위 찾아 후보 등록

6·1 지방선거 후보 등록 첫날인 12일 전북도지사 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조배숙 후보가 오전 11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찾아 후보 등록을 마쳤다

조 후보는 “전북은 앞으로 더 발전해야 하므로 강력한 정부의 지원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며 “b턴 일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강력한 여당 도지사가 필요하다” 전북도민들께서 아편에는 민주당 일당 독점에서 벗어나 여당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조 후보는 공약으로 ▲새만금사업을 본 궤도에 올리기 위한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상용차·조선 등 기존 주력사업 부활 ▲관광벨트 연계로 전북 전체를 관광과 힐링의 중심지로, ▲전북을 세계 식품시장의 중심지로, ▲전북도민의 기본생활권 보장 ▲동서 연결 철도와 도로망 구축, ▲전북을 생활스포츠의 성지로 육성 등을 제시했다

한편, 조배숙 후보는 서울법대와 동



국민의힘 조배숙 전북도지사 후보가 12일 오전 11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찾아 후보 등록을 마쳤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대한민국 최초 여성 검사로 시작하여 판사, 변호사를 역임한 후 국회에 진출한 4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장과 민주당

회당 대표를 지낸 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영입돼 전북 선대위 총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유호상 기자

“새 정부 기회특구 수용·추진 환영”

민중 김수홍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이 윤석열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회발달특구 정책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충남 기 경제부총리에게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회특구 가균형발전에 효과적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며 “이를 수용해 인수가 기회발달특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환영한다”고 말했다

최근 인수가 발표한 기회발달특



국에서 시행 중이다

김 의원의 제안에 충남기 부총리도 해외 입법례 등을 바탕으로 상세하게 검토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김수홍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윤석열 후보자에게 기회특구 도입과 관련된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의원은 “인수와 협력해 미국의 기회특구 제도를 우리 현실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 다각적인 입법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업의 지방 이전과 관련해 양도세, 상속세 감면을 골자하면 패키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팔아 대표이사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100여억원에 넘겨 430여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

이상직 의원,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형 확정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대량의 문자 메시지를 당원에게 보내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집행정부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업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전주를 후보 선출을 위한 이덕준 변호

사와의 경선 과정에서 중복 투표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관리 당원과 시민 등 다수에게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선거캠프 소속 A씨와 함께 중산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인 2019년 1월과 9월 모두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된 2000원 상당의 명절 선물(전통주)과 책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그의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에 허위사실 기재 등 혐의 전주 소재 한 교회에서 대령을 거론하며 “정운천 후보를

꺾어라”는 발언을 하고 명함을 배포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대규모 조직적인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의 정당한 대표자를 뽑는 선거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팔아 대표이사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100여억원에 넘겨 430여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

“품격있는 김제 만들 것”

김종회 전 의원, 민주 탈당 김제시장 출마 선언 “정호영 전 예비후보도 탈당 날 돕기로 했다”

김종회 전 국회의원이 12일 “품격있는 김제를 만들겠다”며 김제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을 탈당했다”며 “김제시민의 양심을 믿고 시장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을 한 뒤 김제시장직에 출마하니 놀라신 분도 계시고 환영하는 분도 계신다”며 “원칙과 공정이 사라진 지금 정치 현실에 양심 있는 정치인의 한사람으로 좌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출마의 변을 가름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으로서 지역적·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며 “품격있는 김제를 만들려는 시민들의 지상명령을 받들겠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또, “소상공 지역경제분야 농축산업, 복지, 문화관광, 소풍행정 등 5개 분야로 나눠 추후 세부공약을 발표하겠다”며 “약속을 꼭 지키는 김종회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의원은 덧붙여, “민주당 김제



시장 후보경선에 나섰으나 패배한 정호영 예비후보가 민주당을 탈당하고 지를 돕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전북도당은 성명을 내고 “김 전 의원은 민주당의 대선 승리와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민주당에 입당할 지 5개월도 지나지 않아 당을 박차고 나갔다”며 “김제시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호상 기자

“尹 정부 초대 내각, 사익추구형 모음집”

신영대 의원, 산자부장관 후보자에 혈세유학·사외이사 등 중기부장관 후보자에 이해충돌·백지신탁·스펙업 지적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지난 9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연이은 송곳 질의로 활약을 펼쳤다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들의 특징은 공직을 이용해 사익추구를 한 점”이라며, 후보자들의 적격성과 도덕성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먼저 신 의원은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창양 후보자를 향해 “공무원 역량 제고를 위한 국외연수를 스펙업의 수단으로 삼아 카이스트 교수직, 대기업 사외이사직 임 등 사적 이익만을 추구했다”라며, “이와 같은 부도덕한 행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퇴직 후 로펌과 기업 등 재취업 금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이창양 후보자가 ▲과거 산업부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직원 유학을 하던 중 자녀도 함께 1년간 미국 초등학교를 무상으로 재학한 점, ▲유학에서 돌아와 3개월 만에 카이스트 교수직에 지원한 점, ▲카이스트 교수직으로 관사에 오랜기간 거주하며, 이 후보자가 소유한 아파트는 전세 임대를 한 점 등을 두고, “공직의 자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다 이용하고 공직을 떠나는 사외이사 자문 등으로 거액의 보수를 받으며 자기 이익을 취했다”며 “공직자로서 제대로 된 자제라고 생각하다”며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산업부 장관의 자리가 후보자의 또 다른 스펙업을 위한



복음선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정작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서(테르텐)는 스톡옵션을 하지 않은 점을 두고 ‘테르텐 운영 실태 보면 기업에 대한 애착보다 여성, 벤처, 창업이라는 이력을 통해 외부활동을 하면서 정치인문제로 활용해온 것’이라며 “중기부 장관 지리를 개인의 도약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국회 임식 이후, 소속 상임위에서 활동하면서 피감기관에 테르텐 제품이 납품된 것과 동시에 2018년부터 테르텐의 매출이 감소했는데 2021년부터 매출이 2배 뛰는 것과 관련해 이해충돌의 문제를 지적하고, ▲후보자의 보유주식을 백지신탁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공직자의 길로 들어선 순간(백지신탁 등에 대해) 결단을 했어야 한다”라며 “공직을 수행할 지, 벤처사업가로서 국가에 경제적 기여를 할지를 판단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이영 후보자를 질타했다

신 의원은 이번 청문회를 두고 “이창양 후보자의 혈세유학, 자녀 무상유학, 사외이사, 관사테크와 이영 후보자의 이해충돌, 백지신탁 문제를 볼 때 공직에 오고서도 사익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일갈하며 “사익추구에만 몰두했던 두 후보자가 국무위원으

로서 국익과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신영대 의원은 인사청문회 준비기간 동안 ▲청양정신을 강조했던 이창양 후보 카이스트 교수진 창업 관련 자료·연구가 전무했던 점, ▲이창양 후보자가 법적 근거없는 산업부장관 경제자문관 활동으로 경력을 부풀렸다는 의혹, ▲이영 후보자가 과거에 경영한 기업 테르텐이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와 대량 계약을 수주한 점 등을 언론에 단독 보도하며, 주목을 받았다. /유호상 기자

국힘 정운천·성일종 의원 ‘5·18 광주인상’ 수상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은 12일 5·18민주화운동공로상, 5·18민주화운동공로상,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기념재단으로부터 ‘자랑스러운 5·18광주인상’을 수상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4개 단체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이 그간 국회에서 5·18 관련 법안 심사를 통해 5·18단체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5·18민주화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견고히 하는데 앞장서 온데 대해 감사의 의미를 담아 ‘자랑스러운 5·18광주인상’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운천 위원장은 5·18단체와 22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해왔으며,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함께 5·18단체의 오랜 숙원인 공법단체 설립과 5·18민주유공자 형제자매의 공법단체 회원자격 부여, 5·18 유공자 및 유가족의 명예회복과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 /유호상 기자